

바비인형 컬렉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특성에 관한 연구

신 정 경·이 준 화*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석사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시대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문화 아이콘인 바비인형 컬렉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여성복 컬렉션과 비교 분석을 통해, 바비인형 컬렉션의 표현적 특성과 시대적 패션 양식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해 바비인형의 출현 배경과 바비인형의 특성, 앤드로지너스의 개념 및 출현 배경,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복에 표현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기준을 남성적, 중성적, 양성적 요소로 정의하였고, 실증연구로 2000년대 이후(2000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바비인형과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사진을 10년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나타난 스타일의 사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디자인 요소(실루엣, 아이템, 색상, 문양, 디테일)를 지닌 대표적인 사진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결합하여 이상적인 완전한 존재에 대한 표현으로 등장 이후 지금까지 고전적인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바비인형 컬렉션과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은 여성복에 나타난 남성적, 중성적, 양성적 요소를 가지며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실루엣을 중점 요소로 기준화하였다. 셋째, 바비인형은 시대성을 가지고 시대의 미의 기준을 반영하며 발전하였다. 바비인형은 여성스러움이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던 전통적인 성 개념의 기준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남성적, 중성적, 양성적 요소를 가진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통해 시대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바비인형 패션에서도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이 나타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시대의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배경과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바비인형이 패션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 바비, 바비인형, 앤드로지너스,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앤드로지너스 룩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이준화, [jhlee616@kmu.ac.kr](mailto:jhleec616@kmu.ac.kr)

접수일: 2020년 10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16일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리학적인 성(sex)을 갖게 되며, 점차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사회적인 성(gender)을 형성해나간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류는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 오랫동안 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복식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생리학적인 성의 의미보다 사회·문화적인 성의 의미가 부각되어, 심리적인 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양쪽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앤드로지너스(androgyne)는 고대의 완벽성, 전체성을 지닌 신성한 의미로부터, 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의 추구, 성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성별의 한계를 극복하여 완전한 성으로의 표현 등 다양한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Park, 2002). 21세기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남녀 평등사상의 확대와 전통적인 성 개념과 역할에 대한 거부 및 성차별 반대 현상이 뚜렷해졌으며, 인간을 오로지 두 개의 성으로 구분하는 과거와 달리 이상적인 인간으로 양성성의 개념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패션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결합하여 이상적으로 완전한 존재에 대해 표현을 하며, 각자의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패션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지닌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바비인형(Barbie doll)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대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문화 아이콘인 바비인형 컬렉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분석을 통해, 바비인형 컬렉션의 표현적 특성과 시대 양식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해 바비인형에 대한 고찰로 바비인형의 출현 배경과 바비인형의 특성을, 앤드로지너스에 대한 고찰로 앤드로지너스의 개념 및 출현 배경,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바비인형 공식 홈페이지(www.b Barbie.com)를 통해 2000년대 이후(2000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197장의 사진 중 남성적, 중성적, 양성적 요소를 가진 180장의 사진을 선별하였다. 여성복 컬렉션은 같은 기간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www.google.com)에서 영문으로 ‘앤드로지너스 여성복 컬렉션(androgyne womenswear collection)’이라는 검색어로 ‘남성복이 아닌(not menswear)’, ‘디자이너 컬렉션(designer collection)’의 키워드를 상세 검색 설정에 입력하여 총 1,579장의 사진 중 정확한 연도와 시즌이 기재되어 있는 사진 195장을 선별하였다. 이들 사진을 10년 단위로 기간을 나누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나타난 스타일의 사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디자인 요소(실루엣, 아이템, 색상, 문양, 디테일)를 지닌 대표적인 사진 3장씩을 선별하여 바비인형 컬렉션과 여성복 컬렉션을 비교 분석하였다.

II. 바비인형에 대한 고찰

1. 바비인형의 출현 배경

바비인형은 루스 핸들러(Ruth Handler)와 엘리엇 핸들러(Elliott Handler) 부부가 1956년 독일 여행 중 사온 ‘빌드 릴리 인형(Bild Lilli doll)’을 토대로 부부의 어린 딸 ‘바버라(Barbara)’ 이름에서 착안하여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인형을 만들었다. 빌드 릴리는 독일 신문 ‘빌드 차이퉁(Bild Zeitung)’의 만화 주인공으로, 금발의 젊은 여성 캐릭터이며,

인형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미 유명한 캐릭터였다(Tosa, 1998). 헨들러 부부는 1959년 마텔사(Mattel Corp)를 설립하고 이상적인 황금비율의 8등신 인체를 적용하여 오늘날의 바비인형을 만들었다.

2. 바비인형의 특성

1) 시대의 패션 반영

1963년 소련(현 러시아)이 인류 최초 여성 비행사를 우주로 보내면서 1965년에 PVC 소재의 우주복을 입은 바비인형을 출시하였고, 1960년대 미국의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의 패션이 이슈화되면서 재클린 케네디 바비인형이 등장하였다. 바비인형의 초기 팬츠 룩은 유니섹스(unisex)의 유행과 함께 영 패션의 급격한 변화를 미니스커트, 블루진, 핫팬츠 등의 아이템을 이용하여 영 캐주얼 패션을 표현하였다. 또한 바비인형은 팝아트(pop art)와 에스닉(ethnic) 사조의 영향을 받아 더욱 다양해진 소재와 패턴을 개발하여 바비인형 패션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바비인형이 사회·문화적 트렌드와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는 문화 아이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1990년대 슈퍼모델이라는 직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1996년 3월에는 클라우디아 쉬퍼(Claudia Schiffer), 나오미 캠벨(Naomi Campbell), 카렌 멀더(Karen Mulder)의 형상을 만든 모델 바비인형이 발매되었다. 2000년대는 20세기에 대한 회귀 현상인 레트로(retro) 패션의 열풍으로 바비인형 컬렉션에서도 20세기 불후의 명작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로 구성된 할리우드 레전드 시리즈(Hollywood legends series)가 출시되어 당시 패션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바비인형을 볼 수 있다.

2) 이상적인 신체관

바비인형은 우리들의 동경과 상상 속에 감춰진

환영이 개념화된 이미지와 문화를 반영한 아이콘이다. 바비인형의 전신인 빌드 릴리 인형의 모습을 반영하며 꾸준히 이상적인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성의 상품화보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점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바비인형은 타인을 의식하고 자신의 미를 추구하여 페미니즘(feminism)을 강조한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바비인형의 신체는 현실적이 아니다. 현실적인 몸으로 환산해 보면 가슴둘레 100cm, 허리둘레 54cm, 엉덩이둘레 80cm로 바비인형의 몸매는 키가 너무 크고 말랐으며, 가슴이 너무 크고 힙은 비현실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Lehnert, 2000).

바비의 신체가 비현실적이나 5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된 사실은 바비인형의 신체가 이상적이란 것을 말해준다. 결국, 바비인형은 이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빠르게 최신 패션 아이템을 소화하여 유행에 대응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비인형은 계속 패션 트렌드와 함께 변화하면서 동시에 변화하지 않는 신체로 존재할 수 있었으며, 더욱 이상적으로 여겨졌다.

3) 드림 걸

바비인형은 드림 걸(dream girl) 이미지를 스타일화 하여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일상생활에서부터 파티 등의 사교생활에 이르기까지 그에 적합한 패션을 보여주며 소녀들은 바비인형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직접 스타일을 전개하여 문화와 패션을 전파하면서 더욱 환상적인 조형미로 바비인형 패션은 가치를 더해갔다(Cho, 2005). 루스 헨들러는 바비인형의 목적은 여자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여러 가지 선택상황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하였으며, 바비인형은 승무원에서 우주비행사와 조종사, 의사, 회사원, 배우, 해병, 올림픽 선수, 뉴스캐스터, 외교관, 대통령 후보까지 다양한 직업과 현대 여성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등장하였다(Yum & Lee, 2002).

바비인형의 이미지와 패션을 보면 소녀들이 원하고 동경하는 이상적인 사고를 스타일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비인형은 직업, 차, 집, 친구들과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인들의 전형적인 평범한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더욱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어린아이들이 바비인형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판타지(fantasy) 세계로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 페미니즘

바비인형은 많은 페미니스트(feminist)들을 위한 남성 우위의 성에 대한 차별의 상징으로 바비인형의 창시자인 루스 헨들러는 바비를 ‘여성의 상징(symbol of womanhood)’으로 고안했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바비인형의 모습과 직업이 바뀌어 가며 꾸준히 페미니즘을 반영하고 있다(Cho, 2005). 페미니즘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여성이 사회적으로 받는 억압이나 고통에 대한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지향하는 운동(Lee, 2010)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페미니즘을 통한 여성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에 따라 여성 인권의 담론이 다각도로 이루어졌으며,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었다(Kim & Kim, 2020). 이에 마텔사는 여성성의 고정화된 의복으로 화려한 장식의 드레스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팬츠 슈트(pants suit)나 올인원 슈트(all-in-one suit) 등 활동적이고 직업에 맞는 실용적인 옷을 입은 바비인형을 출시해 왔다. 바비인형 직업의 다양화와 시대적 이념과 패션 트렌드를 잘 반영한 옷과 액세서리가 어릴 때부터 바비인형을 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성의 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바비인형은 2016년 1월, 론칭 57년 만에 오리지널 바비와 함께, 사람의 신체와 유사한 굴곡진(curvy) 바비, 큰 키(tall) 바비, 작은 키(petite) 바비 등 가장 현실적인

신체를 가진 다양한 체형의 바비인형들로 탄생하였다. 3가지 형태의 체형, 7종류의 피부색, 22종류의 눈동자 색, 24종류의 헤어스타일로 세분화하였다. 결국, 이러한 바비인형의 역사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양성평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당당한 여성상을 반영한 것을 알 수 있다.

5) 미국 소비문화

미국의 1950년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낙관주의 속에서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향유했으며 그에 따른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교외에서는 부부 단위의 핵가족 가정을 축으로 ‘미국식 생활양식(American way of life)’이 성립되었다. 다양한 산업의 발달로 제품과 서비스의 민주화가 진전되어, 쇼핑몰과 미용실에 매주 외출하는 것이 여성들의 일상생활이 되었고, 중산층은 평균 2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비를 부추기는 유혹 중 하나로 포장 문화가 나타나 계획적인 폐품화가 진행되었으며, 한번 쓰고 버린다는 심리가 나타났다(Yum & Lee, 2002). 바비인형은 이러한 시대의 산물이며 미국 백인 중산계급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번영의 상징이 되었다.

바비인형의 의복과 액세서리, 그리고 주거 용품 등 다양한 아이템들은 빠르게 변화해가는 그 시대의 소비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레저 웨어(leisure wear)부터 비즈니스 웨어(business wear)에 이르기까지, 바비의 아이덴티티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종류의 의복과 액세서리가 출시되었다. 이는 바비라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현실효과를 연출하고 있으며, 미국 소비문화의 다양함과 풍요로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비인형은 시대의 패션 반영, 이상적인 신체관, 드림 걸, 페미니즘, 미국 소비문화를 반영한다.

Table 1. 바비인형의 특성.

구분	특성
시대의 패션 반영	- 유니섹스 유행 시기에는 바비인형 초기 팬츠 룩 등장 - 팝아트, 에스닉 사조의 영향으로 바비인형에 다양한 소재와 패턴 등장 -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를 바비인형 룩으로 반영하며 패션 아이콘으로 각인
이상적인 신체관	- 비현실적 신체 비율임에도 시대를 초월하여 이상적인 신체상으로 이미지화 - 여성들이 동경하는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
드림 걸	-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사교생활 및 일상생활 반영 - 어린이들에게 선망하는 미래의 다양한 직업 제시 - 현대 여성의 표상
페미니즘	- 성의 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지 표현 - 고정화된 의복으로 화려한 드레스만 고집하지 않고, 시대의 이념과 패션 트렌드 반영
미국 소비문화	- 미국 백인 중산계급의 가치관 대표 - 미국의 소비문화에 근본을 두고 설계

이러한 바비인형의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III. 앤드로지너스에 대한 고찰

1. 앤드로지너스의 개념 및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출현 배경

1) 앤드로지너스의 개념

앤드로지너스의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남성을 뜻하는 앤드로(andro)와 여성을 뜻하는 진(gyn)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다. 알렉산드라 지 카플란(Alexandra G. Kaplan)과 조안 피 빈(Joan P. Bean)은 그리스어에서 ‘앤드로지니(androgyny)’란 단 하나의 유기체 안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모두 존재하는, 즉 양성체(hermaphrodite)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Kang & Lee, 2009). 심리학자 샌드라 벰(Sandra Bem) 또한 양성성의 개념을 주장하였고,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양분화 된 범주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며, 여성이나 남성은 모두 여성적 특성과 동시에 남성적 특성을 함께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성과 남성성의 특성이 모두 높은 사람을 ‘양성성’이라 하였다(Kim, 1987). 21세기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남녀 평등사상의 확대와 전통적인 성

개념과 역할에 대한 거부 및 성차별 반대 현상이 뚜렷해졌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젠더 이분법은 사회 권력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전통적인 성과 젠더의 분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Yu & Chun, 2020). 인간을 오로지 두 개의 성으로 구분하는 과거와 달리 이상적인 인간으로 양성성의 개념이 확대된 것이다.

2)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출현 배경

사람은 출생하는 순간 여자와 남자라는 생리학적 성을 가지게 되고, 점차 사회적인 성을 습득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자는 여성성을, 남자는 남성성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절대적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여성은 오로지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며, 이분법적 성별 구분 때문에 남성에게 종속적인 존재로 인식되었고, 여자는 여성적인 것이, 남자는 남성적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Lee, 2007). 패션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차가 뚜렷하게 구분된 시기는 중세 중기(11-13C) 이후이며 남녀의 신체적 특징이 계급과 의복의 결합으로, 남자는 팬츠를, 여자는 스커트를 입는 것이 고정 관념화되어 관습처럼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성 역할의 고정관념은 19세기 중반 여성 해방 운동을 시작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의식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Jang, 2015).

앤드로지너스의 이미지가 패션으로 활발히 표현된 것은 19세기 즈음으로, 이 당시 여성 운동의 본격적인 활동은 먼저 여성에게 있어 활발한 사회 활동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성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정신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을 의미하는 앤드로지너스의 개념과 일치되었다(Kim & Geum, 1998).

패션에서의 양성성의 개념은 여성복에 남성적인 디자인 요소를 차용하거나 남성복에 여성적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복에서 고정관념적인 성 역할의 구분이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패션에서 성(sex) 정체성은 주로 아이템과 디테일로 표현된다. 남성적 성 정체성의 표현은 슈트와 팬츠가 대표적이며 직선적 실루엣과 어두운 컬러로 어깨와 가슴을 확대, 과장하여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형태로 표현된다. 여성적 성 정체성은 현대 패션에서 페미닌 룩(feminine look)으로 분류되는 가슴과 허리 곡선을 부각하여 보여주는 곡선적 실루엣, 스커트, 부드러운 소재, 밝은 컬러로 대표되며 장식적 디테일과 우아한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는 고정화된 성 역할로 인한 패션의 성 정체성 표현의 대표적인 예이다(Jang, 2015).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은 1960년대 유니섹스 룩에서 벗어나 여성만의 변화가 아닌 남성도 변하게 했으며, 기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관념을 뛰어넘어 하나의 성이 다른 성의 요소를 복식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할 수 있는 패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특성

1) 20세기 전반

복식은 신체 보호의 기능을 기본으로 시대의

정신과 이념을 담고 표현되어왔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기존의 고정관념은 사고와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활동 범위를 규제하였고, 복식은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 짓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년대는 여성의 활발한 경제 활동과 자유연애, 남녀평등 사상을 배경으로 보이시(boyish) 스타일의 가르송느 룩(Garçonne look)이 유행하였고, 여성복은 더욱 남성복의 특징을 띠게 되었다. 가르송느 룩은 남성적 사고관을 동경하는 여성의 욕구 표현으로 가슴, 허리, 힙을 강조하지 않은 직선적 실루엣과 짧은 중성적 헤어스타일로 소년 같은 소녀의 이미지로 표출되었다(Jang, 2015).

1930년대에는 이상적 여성상으로 알려진 독일계 미국 영화배우 마를렌 디트리히(Marlen Dietrich)의 어깨에 두꺼운 패드를 넣고 험령하게 재단한 검은색과 무채색으로 구성된 포멀(formal)·매니시(mannish) 슈트 차림이 이슈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여성복에ミリ터리 룩(military look)을 등장시킴으로써 실용적이면서 좀 더 남성 의복의 특징을 띠게 만들었고 남성복에서는 격식이 줄어들어 베스트(vest)를 뺀 슈트가 유행하면서 남성복과 여성복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출현 배경은 여성 해방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 활동, 성 역할의 변화가 촉매 역할을 하였으며, 주로 남성복보다는 여성복에 남성적 요소를 복식에 도입함으로써 매니시한 이미지의 남성화 현상이 주를 이루었다.

2) 20세기 후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패턴과 컬러의 사용이 증가하고, 남성복의 여성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1960년대 후기의 남성복 패션에 큰 영향을 준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일컫는 ‘공작혁명(peacock revolution)’은 보수적이고 단조로운 남성복 스타일에 프릴을 사

용하거나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여 보다 화려한 착장으로 남성복의 여성화 현상을 표현하였다. 1950년대 청소년 하위문화 집단인 테디 보이(Teddy boy)는 남성의 일반적인 규범이나 기준에 대한 도전으로 보수적 남성복에 여성 복식 요소를 도입하여 변화를 시도하였고, 성의 고정관념에 대한 반항심을 복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성별 구분이 힘든 유니섹스 모드를 사용하였다. 유니섹스란 남녀공용을 의미하며 패션 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는 복장을 뜻하며(Jung, 1997), 여성복의 남성화 경향에서 시작하였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으로 양성적, 중성적 이미지가 강하며 아이템으로는 티셔츠, 데님 팬츠, 점퍼 등이 있다. 1960년대부터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념이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여 절대이념을 거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의 양성화를 추구하는 앤드로지너스의 개념과 연결된다.

여성복은 미니스커트와 유니섹스 모드의 영향으로 데님 팬츠를 즐겨 입게 되었고, 1966년 이브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남성 정장을 여성복으로 재단해 만든 르 스모킹 룩(Le Smoking Look)을 선보이며, 여성복에 있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앤드로지너스는 1970년대 록스타들의 패션에 나타나면서 1980년대 중반에 가장 두드러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로 정착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록스타들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뛰어넘는 앤

드로지너스 스타일은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의복의 장식성, 액세서리, 화장, 헤어스타일 등 의복 양식의 다양화를 통해 고정화된 남성의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을 지양하고 여성적 감성의 표현을 개성 연출의 도구로 사용하며 대중화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Jang, 2015). 1990년대 남성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제되어 있는 성 정체성을 복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여성복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은 1990년대를 지나 현재까지도 이어져 남성복의 주요 아이템인 테일러드 슈트, 재킷, 셔츠 등을 자유롭게 착용하며 이들 아이템을 남성복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고찰에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특성을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

IV. 바비인형 컬렉션과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특징

1. 2000년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9·11 테러와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일어났으며,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다. 유럽의 정치와 경제적 통합을 위한 유

Table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특성.

유형	여성복	남성복	유니섹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여성다움 붕괴 - 신분 상승 욕구 - 여성복에 남성 복식 요소 차용 -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실루엣 - 무채색 - 남성복 슈트의 소재 - 심플한 디테일 - 남성 슈트 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남성다움 붕괴 - 남성복에 여성 복식 요소 차용 - 신체 라인 강조 - 비비드한 컬러 - 부드러운 소재 - 화려한 디테일 - 미니스커트 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모두를 위한 디자인 - 여성복의 남성화 경향에서 시작 -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으로 양성적, 중성적 이미지 - 티셔츠, 데님 팬츠, 점퍼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반항 - 개성 추구, 자유로운 감성 표현 		

럽 연합은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사용하여 정치·경제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패션 분야는 20세기의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 의상이 2000년대 전반의 클래식 스타일로 자리 잡았으며, 1930년 할리우드 스타일, 1940년 기능복 스타일, 1980년 과장적 스타일이 ‘레트로 스타일(retro style)’로 과거 회귀주의 바람으로 등장하였다(Lee & Park, 2011). 2000년대 바비 컬렉터 라인은 한정 수량으로 일련번호를 새천년에 맞춰 새롭게 만들었으며, 20세기의 무비 스타를 모티브로 ‘할리우드 무비 스타 컬렉션’이 출시되었고, 오리지널 포니테일 바비인형을 토대로 한 실크 스톤 시리즈(Silk-stone series)가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과거의 흔적을 되살려 시대가 원하는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한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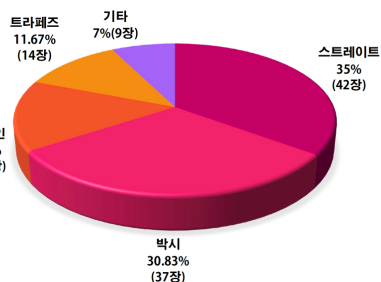


Figure 1. 바비인형 실루엣 구성(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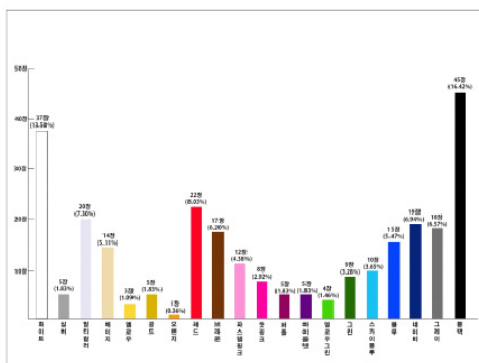


Figure 3. 바비인형 색상 구성(2000년대).

1) 바비인형 컬렉션의 디자인 특징

120장의 사진, 274개의 아이템을 분석한 결과 <Figure 1>과 같이 실루엣은 대체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실루엣(35%)과 박시 실루엣(30.83%)이 나타났으며, <Figure 2>의 아이템을 살펴보면 탑(26.28%), 팬츠(18.98%), 재킷 & 점퍼(17.15%)의 비중이 높았다. <Figure 3>처럼 색상은 블랙(16.42%), 화이트(13.50%) 등의 무채색 계열을 중심으로 1-2개의 포인트 컬러가 사용되었으며, <Figure 4>와 같이 문양은 없음(51.83%)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클래식한 스트라이프(9.13%), 체크(8.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ure 5>처럼 디테일은 금속 단추(215개), 금속 지퍼(188개), 빅 포켓(165개) 등이 특징이다. 이 시기 대표할 수 있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닌 3장의 사진을 선별하여, 그에 따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6>은 2003년 바비인형 컬렉션

구분	탑	팬츠	재킷 점퍼	스커 트	코트	원피스	기타	올인 원	계
%	26.28	18.98	17.15	15.33	10.58	5.47	4.75	1.46	100
장수	72	52	47	42	29	15	13	4	274

Figure 2. 바비인형 아이템 구성(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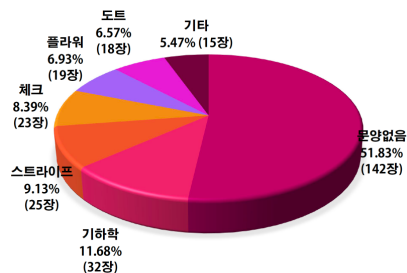


Figure 4. 바비인형 문양 구성(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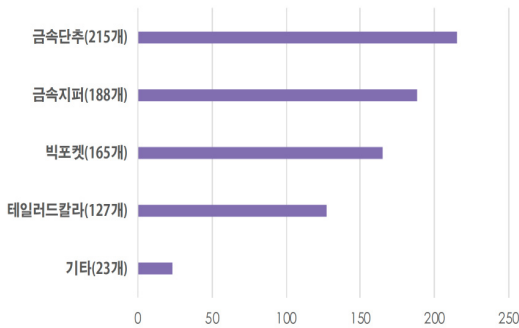


Figure 5. 바비인형 디테일 구성(2000년대).

으로 실루엣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며, 아이템은 트렌치코트, 탑, 스커트로 구성되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컬러이며, 문양으로 패션모델 일러스트가 사용되었다. 디테일은 스톰 플랩(storm flap)이 특징이다. <Figure 7>은 2006년 바비인형 컬렉션으로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며 아이템은 트렌치코트로 구성되었다. 색상은 베이지, 그린, 네이비 컬러를 사용하였고 문양은 트렌치코트 안감에 체크무늬를 볼 수 있으며, 디테일은 박스 포켓, 더블 버튼이 특징이다. <Figure 8>은 2009년 바비인형 컬렉션으로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며, 아이템은 점퍼와 팬츠로 구성되었다. 색상은 그레이, 네이비 컬러를 사용하였고, 문양은 없으며 디테일은 박스 포켓과 금속 지퍼가 특징이다.

2) 여성복 컬렉션의 디자인 특징

94장의 사진, 245개의 아이템을 분석한 결과 <Figure 9>와 같이 실루엣은 전반적으로 스트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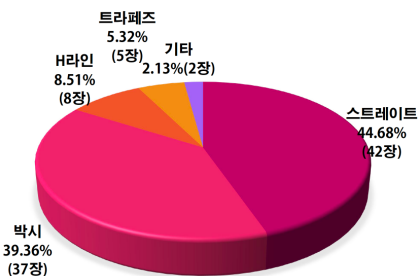


Figure 9. 여성복 실루엣 구성(2000년대).



Figure 6. Fashion Model Collection 1. From "Trench Setter". (2003). <https://barbie.mattel.com>

Figure 7. Fashion Model Collection 2. From "True Brit". (2006). <https://barbie.mattel.com>

Figure 8. Twilight Saga Collection. From Twilight Bella Doll. (2009). <https://barbie.mattel.com>

트 실루엣(44.68%)과 박시 실루엣(39.36%)이 나타났다. <Figure 10>처럼 아이템은 탑(35.92%), 팬츠(21.22%), 코트(14.69%)의 비중이 높았다. <Figure 11>과 같이 색상은 블랙(19.18%), 화이트(12.65%), 그레이(11.43%), 베이지 (6.12%)의 사용 빈도가 높았고, <Figure 12>처럼 문양은 없음(34.6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스트라이프(9.39%), 체크(6.94%) 순으로 나타났다. <Figure 13>과 같이 디테일은 테일러드 칼라(97개), 금속 단추(85개), 비대칭 컷(21개) 등이 특징이다. 이 시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닌 대표적인 3장의 사진을 선별하여, 그에 따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14>의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2001 S/S 컬렉션을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며 아이템은 재킷, 탑, 팬츠로 구성되었다. 색상은 다크 브라운과 피치 컬러이며, 문양은 없으며 디테일은 테일러드 칼라, 금속 더블 버튼이 특징이다. <Figure 15>의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2007 F/W 컬렉션을 살펴보면 박시

구분	탑	팬츠	코트	재킷 점퍼	스커트	원피스	올인원	기타	계
%	35.92	21.22	14.69	10.20	6.94	4.49	3.67	2.87	100
장수	88	52	36	25	17	11	9	7	245

Figure 10. 여성복 아이템 구성(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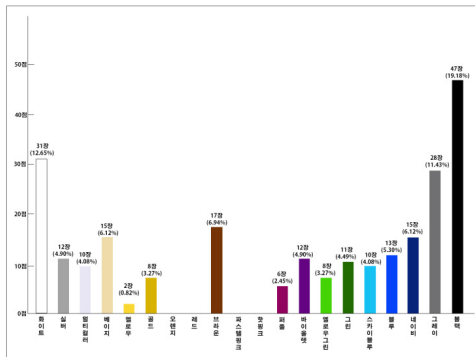


Figure 11. 여성복 색상 구성(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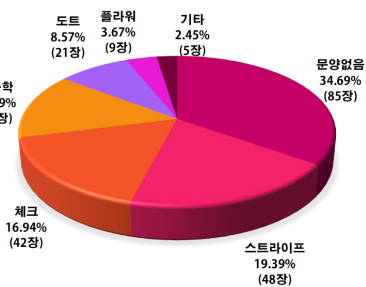


Figure 12. 여성복 문양 구성(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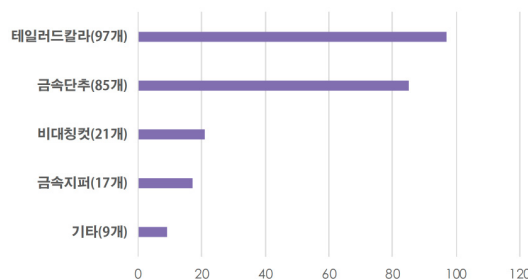


Figure 13. 여성복 디테일 구성(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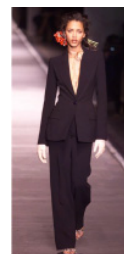


Figure 14. Jean Paul Gaultier 2001 Couture. From Jean Paul Gaultier Spring 2001 Couture. (2001). <http://www.vogue.com>



Figure 15. Yohji Yamamoto 2007 Ready-to-Wear. From Phelps. (2006). <http://www.vogue.com>



Figure 16. Christian Dior 2008 Ready-to-Wear. From Mower. (2007). <http://www.vogue.com>

실루엣이며, 아이템은 코트, 셔츠, 팬츠로 구성되었다. 색상은 화이트, 그레이, 블랙 컬러를 사용하였고, 문양은 없으며, 디테일은 언발란스 코트 기장과 팬츠의 플리츠가 특징이다. <Figure 16>의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 2008 S/S 컬렉션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며 아이템은 재킷, 베스트, 셔츠, 팬츠로 구성되었다. 색상은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하였다. 문양은 없으며 디테일은 테일러드 칼라, 금속 싱글 버튼이 특징이다.

2. 2010년대

2010년대는 스마트 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통신망의 진보가 사회 운동으로 이어져 아랍권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과학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세계 각국에서는 작게는 사회적 혐오 정서의 난립부터, 크게는 전쟁과 테러까지 좋지 않은 사건들이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산업 전반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기술이 사용된 신소재, 복합 재료 등으로 소재의 혁신을 가져다주었으며 컴퓨터 전자 텍스타일 및 3D 프린터를 이용한 패션 산업 성장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Namuwiki, n.d.).

이 시기 패션에서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여러 시대 패션들의 레트로 현상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되었으며, 빠르게 유행의 흐름이 변화하고 여러 시대 패션이 공존하고 있다. 2016년 바비인형은 탄생 57년 만에 사람의 신체와 유사한 굴곡진 바비, 큰 키 바비, 작은 키 바비 등 현

실적인 몸매를 가진 다양한 체형과 30종의 머리색, 24종의 헤어스타일, 22개의 눈동자 색, 14종의 얼굴 모양, 7종의 피부 톤을 가진 바비인형들이 출시되었다(Yong & Park, 2016). 이는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오리지널 바비인형의 몸매를 동경하는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1) 바비인형 컬렉션의 디자인 특징

60장의 사진, 152개의 아이템을 분석한 결과 <Figure 17>처럼 실루엣은 스트레이트 실루엣(43.34%)과 박시 실루엣(25%)이 대표적이며, <Figure 18>과 같이 아이템은 탑(25%), 팬츠(16.45%), 재킷&점퍼(15.13%) 등으로 구성되었다. <Figure 19>처럼 색상은 블랙(32.34%), 화이트(15.79%)를 비롯하여 3가지 이상 사용한 멀티 컬러(11.84%)의 빈도가 높았으며, 다양한 컬러가 사용되었다. <Figure 20>과 같이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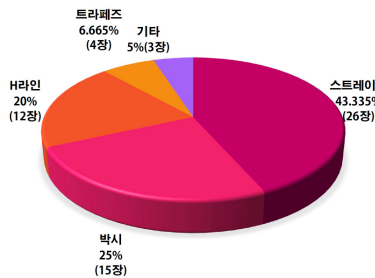


Figure 17. 바비인형 실루엣 구성(2010년대).

은 없음(40.13%), 스트라이프(16.45%), 도트(10.53%), <Figure 21>처럼 디테일은 금속 지퍼(73개), 테일러드 칼라(59개), 가죽 벨트(37개) 등이 특징이다. 이 시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닌 대표적인 3장의 사진을 선별하여, 그에 따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22>의 2012년 바비인형은 영화 트와일라이트(The Twilight Saga: Breaking Dawn)의 주인공 벨라(Bella)의 패션으로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며, 아이템은 재킷, 팬츠로 구성되어 있다. 색상은 브라운,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였고, 문양은 없으며, 디테일은 금속 지퍼, 더블 버튼이 특징이다. <Figure 23>의 2014년에 출시된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바비인형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며, 아이템은 재킷, 셔츠, 팬츠로 구성되어 있다. 색상은 화이트, 블랙 컬러를 사용하였고, 문양은 없으며, 디테일은 셔츠의 탭 칼라, 재킷의 테일러드 칼라, 체인 목걸이가 특징이

구분	탑	팬츠	재킷 점퍼	코트	스커트	기타	원피스	올인원	계
%	25	16.45	15.13	12.50	10.53	7.89	7.24	5.26	100
정수	38	25	23	19	16	12	11	8	152

Figure 18. 바비인형 아이템 구성(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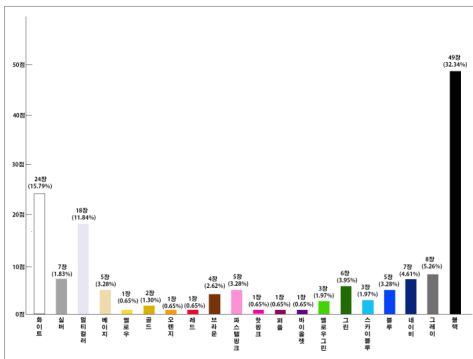


Figure 19. 바비인형 색상 구성(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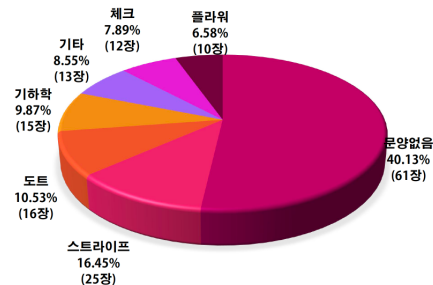


Figure 20. 바비인형 문양 구성(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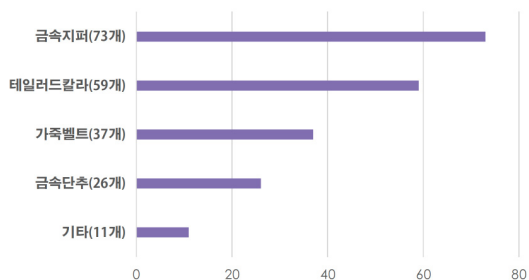


Figure 21. 바비인형 디테일 구성(2010년대).



Figure 22. The Twilight Saga Collection. From "The Twilight Saga". (2012). <https://barbie.mattel.com>



Figure 23. Karl Lagerfeld Barbie Doll. From "Karl Lagerfeld Barbie". (2014). <https://barbie.mattel.com>



Figure 24. Iris Apfel Doll. From "Barbie Styled". (2018). <https://barbie.mattel.com>

다. <Figure 24>는 2018년에 출시된 인테리어 디자이너이며 패션 아이콘인 아이리스 아펠(Iris Apfel) 바비인형은 박시 실루엣의 코트와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탑과 팬츠로 구성되었다. 색상은 베이지, 스카이 블루, 네이비 컬러이며, 문양은 플라워 무늬를 사용하였고, 디테일은 칼라리스(collarless) 재킷이며, 플라스틱 목걸이가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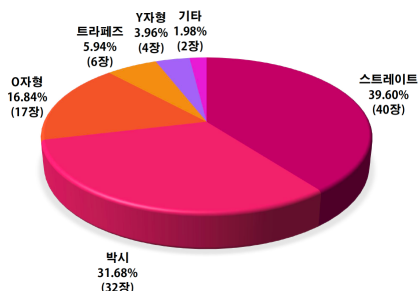


Figure 25. 여성복 실루엣 구성(2010년대).

2) 여성복 컬렉션의 디자인 특징

101장의 사진, 263개의 아이템을 분석한 결과 <Figure 25>와 같이 실루엣은 스트레이트 실루엣 (39.54%), 박시 실루엣(31.56%), O자형 실루엣(6.84%) 이 주를 이루고, <Figure 26>처럼 아이템은 재킷&점퍼(28.90%), 코트(22.05%), 팬츠(19.39%)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Figure 27>과 같이 색상은 블랙(42.59%),

구분	재킷 점퍼	코트	팬츠	탑	스커트	원피스	올인원	기타	계
%	28.90	22.05	19.39	18.63	4.56	2.67	2.28	1.52	100
장수	76	58	51	49	12	7	6	4	263

Figure 26. 여성복 아이템 구성(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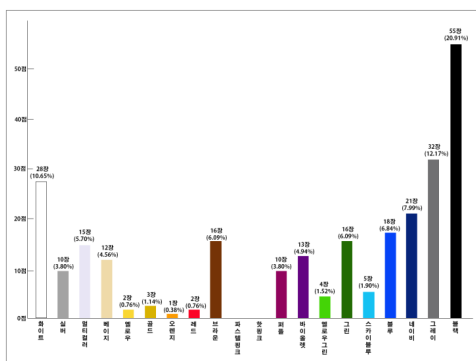


Figure 27. 여성복 색상 구성(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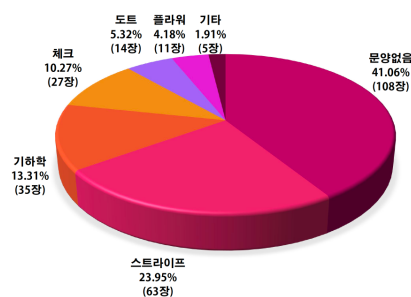


Figure 28. 여성복 문양 구성(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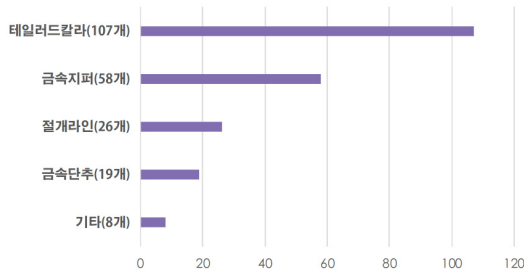


Figure 29. 여성복 디테일 구성(2010년대).

네이비(28.52%), 화이트(18.25%), 퍼플(8.75%)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Figure 28>처럼 문양은 없음(41.06%)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Figure 29>와 같이 디테일은 테일러드 칼라(107개), 금속 지퍼(58개), 다양한 형태의 절개 라인(26개) 등이 특징이다. 이 시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닌 대표적인 3장의 사진을 선별하여, 그에 따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Figure 30>의 질 샌더(Jil Sander) 2017



Figure 30. Jill Sander FALL 2017 READY-TO-WEAR. From Phelps. (2017). <http://www.vogue.com>



Figure 31. Givenchy SPRING 2019 READY-TO-WEAR. From Phelps. (2018). <http://www.vogue.com>



Figure 32. Acne Studios FALL 2019 READY-TO-WEAR. From Verner. (2019). <http://www.vogue.com>

F/W 컬렉션은 O자형 실루엣이며, 아이템은 재킷, 탑, 팬츠로 구성되었다. 색상은 블랙 컬러를 사용하였고, 문양은 없으며, 디테일은 등글고 넓은 어깨와 탑의 스탠드 칼라가 특징이다. <Figure 31>의 지방시(Givenchy) 2019 S/S 컬렉션은 재킷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고, 팬츠는 배럴 실루엣이다. 색상은 그린,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였고, 문양은 없으며, 디테일은 금속 지퍼, 금속 버튼, 팬츠의 절개 라인이 특징이다.

Table 3. 바비인형 컬렉션과 여성복 컬렉션의 대표적 특징.

시대	컬렉션의 특징		대표 이미지	
	바비인형	여성복	바비인형	여성복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이트 실루엣 - 탑, 트렌치코트, 점퍼, 팬츠, 스커트 - 화이트, 블랙, 베이지, 그린, 네이비 - 패션모델, 체크무늬, 문양 없음 - 박스 포켓, 금속 지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이트, 박시 실루엣 - 재킷, 팬츠, 코트 - 다크 브라운, 피치, 화이트, 그레이, 블랙 - 문양 없음 - 테일러드 칼라, 싱글 버튼, 플리츠, 비대칭 컷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이트, 박시 실루엣 - 재킷, 탑, 팬츠 - 브라운, 화이트, 블랙, 멀티 컬러 - 문양 없음, 플라워 무늬 - 금속 지퍼, 금속 단추, 탭 칼라, 테일러드 칼라, 칼라리스, 목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자형, 스트레이트, 배럴, 박시 실루엣 - 재킷, 탑, 팬츠 - 블랙, 그레이, 베이지, 그린 - 문양 없음 - 등글고 넓은 어깨, 비대칭 컷, 금속 지퍼, 금속 단추, 웰트 포켓 		
특성	바비인형		여성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의 패션 반영 - 이상적인 신체관 - 드림 길 - 페미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복에 남성 복식 요소 차용 -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실루엣 - 무채색, 심플한 디테일 - 개성 추구, 자유로운 감성 표현 	

<Figure 32>는 아크네 스튜디오(Acne Studio) 2019 F/W 컬렉션으로 재킷은 박스 실루엣이며 팬츠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다. 색상은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였고, 문양은 없으며, 디테일로 넓은 어깨, 소매 주름, 벨트 포켓, 싱글 버튼이 특징이다.

바비인형 컬렉션과 여성복 컬렉션의 대표적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 <Table 3>과 같다.

V. 결 론

인간의 성은 오랫동안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분류로 복식 및 행동규범 등에 제한을 두며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 왔고, 복식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기도 하였다. 앤드로지너스의 개념은 전통적인 성 역할과 복식에 대한 의식의 전환으로 발생하였으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찾고자 패션으로 표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과 더불어 개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왔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육체적인 성보다 사회·문화적인 성의 의미가 부각되며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지닌 양성적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바비인형 패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결합하여 이상적인 완전한 존재에 대한 표현으로 이상적인 이념을 담고 있으며,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극복 의지와 완전성에 대한 염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시대에 흐름에 따라 사회·문화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에 따른 패션도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19세기 여성 해방운동과 함께 등장한 앤드로지너스의 개념이 21세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이 이상적인 이념을 담고 있으며,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극복 의지와 완전성에 대한

염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바비인형 컬렉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은 여성복에 나타난 남성적, 중성적, 양성적 요소를 가지며 여성의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실루엣을 중점 요소로 기전화하였다. 바비인형 컬렉션은 신체를 구속하지 않아 보다 자유롭고 활동성을 추구할 수 있는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셋째, 바비인형은 시대성을 가지고 시대의 미의 기준을 반영하며 발전하였다. 바비인형은 여성스러움이 여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던 전통적인 성 개념의 기준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남성적, 중성적, 양성적 요소를 가진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통해 시대의 미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패션 트렌드를 빠르게 적용하여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특징을 표방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지금까지 바비인형 패션에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었으며,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기준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어 바비인형 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앤드로지너스 스타일로 추려낸 표본 집단에서의 몇 장의 사진이 각 시대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바비인형 컬렉션과 여성복 컬렉션에서 모두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의 특징이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바비인형 패션에서도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이 나타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시대의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배경과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바비인형이 패션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본 연구가 바비인형에 관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Barbie® Styled by Iris Apfel Doll #2. (2018, November 15). *Barbie*.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barbie.mattel.com/shop/en-us/ba/barbie-styled-by-iris-apfel-doll-fwj28>
- Cho, J. W. (2005). *A study on the formative aesthetic of the barbie doll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Jang, J. H. (2015). A study for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androgynous look in contemporary mens collection: Focusing on 2010 S/S-2014 F/W mens coll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and Culture*, 21(1), 505-519.
- Jean Paul Gaultier Spring 2001 Couture. (2001, January 21). *Vogue*. Retrieved April 6,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1-couture/jean-paul-gaultier>
- Jung, Y. J. (1997). A study on the Mods l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3(-), 189-199.
- Kang, N. N., & Lee, Y. H. (2009). Men's shirts design applying the androgynous image.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7(6), 1009-1020. doi:10.29049/rjcc.2009.17.6.1009
- Karl Lagerfeld Barbie®Doll. (2014, September 29). *Barbie*.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barbie.mattel.com/shop/en-us/ba/karl-lagerfeld-barbie-doll-bcp92>
- Kim, K. O., & Geum, K. S. (1998). A study on the androgynous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6(-), 239-262.
- Kim, M. J. (1987). Youth subcultural styles in Britain since World War II: The symbolical meanings of Teds, Mods, Skinheads, Hippies, and Pun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1(2), 69-89.
- Kim, Y. M., & Kim, J. Y. (2020). A study on sexual images of women expressed in the fashion photography of David LaChapelle. *Journal of Fashion Design*, 20(2), 39-54. doi:10.18652/2020.20.2.3
- Lee, H. J. (2007). *The representation of feminization in Korean men's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eong University, Busan.
- Lee, H. S. (2010). *여성과 사회* [Women & society] Busa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ublishers.
- Lee, J. J., & Park, S. M. (2011). *패션, 문화를 말한다* [Talk about fashion and culture]. Gyeonggi: Yekyong.
- Lehnert, G. (2000). *A History of fashion in the 20th century*. Birmingham: Konemann UK Ltd.
- Mower, S. (2007, October 1). Christian Dior Spring 2008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pril 6,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8-ready-to-wear/christian-dior>
- Namuwiki. (n.d.). 2010년대 [2010s]. *Namuwiki*. Retrieved April 10, 2019, from <https://namu.wiki/w/2010년대>
- Park, S. J. (2002). *A study on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androgynous look i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Phelps, N. (2006, October 2). Yohji Yamamoto Spring 2007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pril 6,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7-ready-to-wear/yohji-yamamoto>
- Phelps, N. (2017, February 25). Jil Sander FALL 2017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pril 13,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jil-sander>
- Phelps, N. (2018, October 1). Givenchy SPRING 2019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pril 13,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givenchy>
- The Twilight Saga: Breaking Dawn-Part 2 Bella Doll. (2012, November 15). *Barbie*. Retrieved April 5, 2019, from <https://barbie.mattel.com/shop/en-us/ba/the-twilight-saga-breaking-dawn-part-2-bella-doll-x8250>
- Tosa, M. (1998). *Barbie: Four decades of fashion, fantasy and fu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 Trench Setter Barbie®Doll. (2003, February 1). *Barbie*. Retrieved April 5, 2019, from <https://barbie.mattel.com/shop/en-us/ba/trench-setter-barbie-doll-b3442>
- True Brit Barbie®Accessory. (2006, April 15). *Barbie*. Retrieved April 5, 2019, from <https://barbie.mattel.com/shop/en-us/ba/true-brit-barbie-accessory-j0941>
- Twilight Bella Doll. (2009, October 1). *Barbie*. Retrieved April 5, 2019, from <https://barbie.mattel.com/shop/en-us/ba/twilight-bella-doll-r4162>
- Vemer, A. (2019, January 21). Acne Studios FALL 2019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pril 13,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acne-studios>
- Yong, J. K., & Park, K. W. (2016). A study on visual identification represented by a doll design: Base on Barbie doll.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14(2), 101-110. doi:10.18852/bdak.2016.14.2.101
- Yu, H. M., & Chun, J. H. (2020). Alessandro Michele's camp aesthetics in the Gucci collection: Based on the David Bergman's classification. *Journal of Fashion Design*, 20(2), 102-120. doi:10.18652/2020.20.2.7
- Yum, H. J., & Lee, M. S. (2002). A study on the symbolism and fashion image of Barbie doll. *Journal of Fashion Business*, 6(2), 137-150.

A Study on Androgynous Style in the Barbie Doll Collection

Shin, Jeong Kyung · Lee, Joon Hoa⁺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Barbie doll collection and the flow of the fashion style of the tim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ndrogynous style that appeared in the Barbie doll collection, which is a cultural icon that reflects various changes of the times, with the womenswear collection. Base on this, the standard of androgynous style expressed in womenswear was defined as masculine, gender-neutral, and androgynous elements, and as an empirical study, the research compared and analyzed androgynous style appeared on Barbie doll collections and womenswear collections after 2000s (from 2000 to March 2019). These photographs were divided into ten year periods, and representative photographs with design elements (silhouettes, items, colors, patterns, and details) that occupied a high proportion of the style photographs in the 2000s and 2010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drogynous style is an expression of a perfect, ideal state that integrates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has remained a classical fashion trend since its first emergence in the fashion industry. Secon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androgynous style in the Barbie doll collection and womenswear collection, this study followed the following criteria: the masculine, gender-neutral, and androgynous elements in womenswear and the silhouettes that do not restrain the freedom of the female body. Third, Barbie dolls, as the objects symbolizing the zeitgeist, have evolved reflecting the standards of the beauty of the times. Through this study, it was established that the androgynous style has been reflected and expressed in various forms in Barbie dolls' fashion. The research has significance as a basic study in that it examined the meaning of Barbie dolls as a cultural icon reflecting the soci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backgrounds, and fashion trends of the times.

Key words : Barbie, Barbie doll, androgynous, androgynous style, androgynous look